

고려용접봉 호남총판

주식회사 민성

광장산업자재(MRO) 불류전문회사

T) 062-953-8318

조간 제 8020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나주신협

나주신협 061)332-5131
나주신협 빛가람지점 061)332-5132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음력 12월 19일)

서남권 관문공항 ‘기회’…군공항 이전 차질없이 추진돼야

행정통합 ‘전남광주특별시’ 발전방안 및 제언

- (1) 프롤로그
(2)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3) 군 공항 이전·무안국제공항 활성화
(4) AI·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
(5) 글로벌관광벨트 구축
(6) 광역교통망 재정비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추진 상황

2016년 8월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2016년 11월	이전적정지역 조사·분석용역 추진
2023년 5월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공동발표
2023년 6월	군공항 유치지역 광주시 지원방안 발표
2023년 8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
2023년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시·도지사 회담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 군공항 이전 3대 원칙 공개
2025년 6월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발표
2025년 7월	광주 군공항 이전 대통령 국정과제 포명
2025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선정
2025년 11월	대통령실 주관 광주·전남·무안 4자 사전협의
2025년 12월	6자 협의체 공동 발표
2026년 1월	6자 협의체 실무회의 논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 개발이 하나의 ‘광역 현안 패키지’로 묶여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왼쪽)과 무안국제공항.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화 개발 ‘본격화’…2033년 준공

시, 광주신세계와 사전협상 완료·공공기여금 1497억

올해 말 착공…업무·주거·문화·상업·의료 등 집약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천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자문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음에 따라 ㈜광주신세계와

국회서 ‘통합특별법’ 논의… 연말까지 이전 부지 확정
 종전부지 개발사업 예타면제·도시혁신구역 지원 받아
 무안군 지원 실천이 관건… 무안공항 활성화로 ‘상생’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이 하나의 ‘광역 현안 패키지’로 묶여 부상하고 있다. 군·민간공항 이전은 행정통합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지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고 협의 절차가 정리되면서 추진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지난해 말 국방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와 함께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달 19일에는 6자 협의체 실무단이 첫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행정 절차와 무안지역 주민설명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정 이후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절차를 검토했으나, 무안군 요청을 반영해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하는 방향

으로 조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안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설명과 설득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절차로 이어진다.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고, 공사기간도 10년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 사업 특성상 재원 조달 구조가 흔들리면 일정이 지연되고, 일정 지연은 지역 갈등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지원을 제도화할 장치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안에는 이전 사업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재정 지원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 이전이 추진될 경우 무안국제공항

의 역할 확대도 불가피하다. 무안공항은 접근성 개선과 노선 안정화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광주 도심과 전남 주요 거점에 서 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용 수요가 늘 수 있다는 평가다.

광주 도심에 남는 종전부지 개발도 병행 과제로 제시된다. 종전부지는 대규모 공간인 만큼 개발 방향에 따라 광주의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 주거 중심 개발로 흐름 경우 단기 재원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성장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전부지 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관광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은 관련 법안 처리와 재원 마련, 무안공항 활성화, 종전부지 개발 전략이 동시에 맞물릴 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곧 돈이고, 기간 단축이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 종전부지 개발이 하나의 광역 전략으로 묶여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알림

제22회 영산강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3월 28일(토) 오전 9시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

지역 경제특화 종합일간지로 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광남일보와 (사)광남문화체육재단이 ‘2026 제22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2026년 제22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합니다. 영산강의 가치를 느끼면서 심신단련의 기회가 될 본 행사에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6년 3월 28일(토) 오전 9시 ~ 오후 1시
 △장 소 :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
 △참가대상 :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현장접수 가능 / 사전(온라인) 접수자에 한해 기념품 제공)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 → 온라인 참가신청
 △봉사활동 : ‘영산강 사랑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초·중·고교생은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등록
 △주최주관 : 광남일보, (사)광남문화체육재단, 전라도인, 광남일보TV
 △후 원 : 나주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예정)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문의전화 : 광남일보 사업국(☎ 062-370-7090)

민주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의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이 제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

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헌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하 고

중흥그룹 중봉(中峰) 정창선(鄭昌善) 회장께서

2026년 2월 2일 오후 11시 46분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광주광역시 서구 VIP 장례타운 301호

발인일시 : 2월 5일 목(木) 오전 7시

장 지 : 화순 개천사

※ 평소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 망 인 : 안양임

아 들 : 정원주, 정원철

며느 리 : 이화진, 윤지연

딸 : 정향미

사 위 : 김보현

손 : 정정길, 정민식, 정준식, 정서윤

외 손 : 김이석, 김이준, 김이열

장례위원장 한상원

2026년 02월 03일 빈소 연락처 : 062-521-4444